

보성, 소외 없는 '복지 600' 실현 가속화

소득·재산 기준 완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력' 발달장애인 돌봄·보훈가족·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성군이 '복지 600' 실현을 목표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16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관 평가에서 '복지 분야 4관왕' 달성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복지 선진화'의 길을 걸어들었다.

올해 보성군은 5·18 민주유공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유족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자활 참여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

가 민간 취업 등 자립을 이루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해 자활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7종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인 아쿠아(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해 총 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준중위소득이 2024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된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1만 7천원 증가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에 따라 자동차 소유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더 많은 군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성군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48명이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장애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적극 도울 예정이

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전년 대비 26% 인상돼 3만3천510원으로 지급된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민생안정 시책으로 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에게 한시적으로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 1개소당 30만원의 부식비를 추가 지원해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돕는다. 이 밖에도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기초연금 지급액 확대·선정 기준 완화 ▲양육비 월 2만원 지급 등을 지원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5년에도 소외 없는 복지 실현으로 군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장성, 설 선물 고급 과일 '레드향' 본격 수확

신맛 적당 14-15brix 단맛 풍부 식감 뛰어난 '아열대과일의 여왕'

장성군이 아열대과일 '레드향' 수확을 시작했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서지향과 병감의 꽃가루를 교배해 개발된 '레드향'은 감귤보다 조금 더 크고 붉은 빛깔을 띠며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고급 만감류 과일이다. '레드향'이 사랑받는 이유는 '고급스러운 맛'에 있다. 만감류지만 신맛이 과하지 않고 단맛이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나 선호한다. 특히 장성산 '레드향'은 평균 14-15브릭스(brix)로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큼한 향도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부터 향긋함이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한다. 부드러우면서 알이 툭툭 터지는 식감이 일품이다. 건강에도 이롭다. 비타민 A, B, C 등이 풍부해 피로 회복과 동맥경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항산화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지난 15일 관내 '레드향'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보태며 직접 수확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레드향'의 당도와 과즙 함량이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알려진 12월 말부터 1월 중순 사이 수확해 상품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가격은 3kg 상자 3만6천원, 5kg 상자 6

만원이며 장성로컬푸드 점단직매장, 농협장성군로컬푸드직매장에서 방문 또는 택배로 구입할 수 있다. 농가 직거래는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보태 김한중 장성군수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장성산 '레드향'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담양군,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담양군은 "최근 2025년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1천931,193천611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16일간)이며, 면허 종별에 따라 최저 4천500원에서 최고 2만 7천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

해 직접 납부도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하면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백종원 재무과장은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다더라도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을 별도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진달래 군락지 여수 '영취산' 명칭 통일

도지명위원회 의결...통용성·인지도 등 고려

여수시는 16일 "그동안 영취산과 진례산으로 혼용되고 있는 지명을 '영취산(山)'으로 통일했다"고 밝혔다. 영취산 지명은 1931년 국무원 고시로 최초 등록됐으나 옛 문헌 기록에 근거해 국토지리정보원 지명 고시로 2003년 진례산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지역민과 탐방객 사이에서는 영취산으로 통용되고 있어 실상과 맞지 않고 혼선을 빚는 일이 잦아 보니 명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2회에 걸쳐 여수시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도지명위원회에 지명 변경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현지실사와 전문가 면담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전남도지명위원회에서 지명 변경안을 심의·의결했



으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난 7일 최종 고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영취산은 대한민국 3대 진달래 군락지 중 하나로, 영취산 진달래축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도 인지도가 매우 높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 지도와 관광 홍보물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사랑상품권, 1월 15% 특별할인 판매

최대 70만원까지...민생경제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화순군은 16일 "설 명절을 맞아 1월 한 달간 화순사랑상품권을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위축된 지역 소비

를 진작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 모바일형(QR, 카드) 상품권에 국한해 할인율 15%가 적용되며, 지류형

은 기존대로 할인율 10%가 적용된다. 지류와 모바일을 통합해 월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화순군 관내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신한,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

으며, 모바일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통해 충전·발급이 가능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세해를 맞아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 진작을 통해 민생경제가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고흥군이 2030년 방문객 1천명 달성을 목표로 천혜 자연환경, 우주항공 등 지역 특색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고흥을 찾은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한 566만여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양이 섬'으로 유명한 옥섬과 8개의 봉우리가 웅장한 팔영산 전경. (고흥군 제공)



고흥군이 2030년 방문객 1천명 달성을 목표로 천혜 자연환경, 우주항공 등 지역 특색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고흥을 찾은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11% 증가한 566만여명을 기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고양이 섬'으로 유명한 옥섬과 8개의 봉우리가 웅장한 팔영산 전경. (고흥군 제공)

'우주 도시' 고흥, 작년 관광객 566만 돌파...11% ↑

지역 특색 살린 과학 테마·천혜 자연 마케팅 주효

고흥군은 16일 "2024년 한 해 동안 고흥을 찾은 관광객 수가 566만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대비 약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성과는 고흥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주, 과학이라는 특별한 테

마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와 마케팅 전략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옥섬은 전년 대비 95%의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봉래산과 팔영산 자연휴양림도 각각 45%, 43%의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팔영대교와 함께 고흥군의 대표 명소 자리잡은 팔영산 권역은 전체 관광객의 35%를 유치하며 고흥관광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고흥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광객의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2030년 방문객 1천만명 달성을 이룰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으로 우주과학열차, KTX 연계 상품 등 우주항공 중심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상품을 확장하고,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흥만의 특색을 살린 로컬콘텐츠 개발과 관광상품 확충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고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백현진 기자

광양백운산고로쇠 수액 첫 '출하'

3월15일까지 판매...신규 규격 1ℓ 제작·소포장 확대

광양시는 16일 "지난 14일 진상면 어치리에서 '천혜 자연 생명수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2025년 첫 출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 및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인화 광양시장, 도·시의원, 지역 농협장, 고로쇠 수액 채취 농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고로쇠 수액은 과거 빼에 이로운 물이라는 뜻에서 '골리수(骨利水)'로 불렸다. 현대로 들어와 마그네슘, 칼륨, 칼슘 등의 풍부함이 밝혀졌으며 2009년 국립산림과학원 실험에서 골다공증 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고로쇠 수액 중 전국 최초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해발 1천222m 백운산 자락의 고로쇠나무에서 채취되며 정제 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다. 광양시는 고로쇠 수액의 품질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